



의 철저한 패배를 상징하는 ‘흙을 먹는다’는 속어로 표현된다(시 72:9, 사 65:25).

이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아담이나 하와가 저주를 받지 않으며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받은 저주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로서 잘 설명되고 있다. 즉 땅은 이전처럼 그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며 인간의 노동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2) 가나안의 저주(창 9:25)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구절에서는 “저주를 받으리라”와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형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가 받은 저주는 형제의 종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죄는 함이 범했는데 왜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는가라고 묻게 된다.

우리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노아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함으로부터 구스, 애굽, 붓과 가나안이 태어났다(10:6). 이들 중 가나안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변태적인 성유희를 행한 것으로 나타난다(레 18:3). 즉 아버지의 수치를 생각 없이 드러내는 함의 무분별성은 후대 애굽인과 가나안인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성적 방종에 대한 예표가 된다. 따라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그의 기정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칭찬 가나안 사람들이 지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아브라함과 그를 저주하는 자들(창 12:3)
미래의 구원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이 중요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국에게 복 주시는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abaraka’) 너를 저주하는 자(meqallelka)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a’or)”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저주하다’는 동사가 두 개 나타나며 전자(qalal)는 후자(‘arar’)보다 그 의미가 약하다. 즉 누구든지 아브라함에 대해 좋지 않은 말만 하여도(qalal)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실’(‘arar’)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저주하리라’(‘a’or)라는 형식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타나며 따라서 이 표현은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할 특수한 위치를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푸대접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이삭과 리브와 야곱(창 27:12~13)

이삭이 그의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개입하며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자, 야곱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뵈일지라 복은 고사하고(lo’beraka’)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alay qelala)’”라고 말한다. 이때 리브기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qillateka)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좃고 가서 가져오라”고 대답한다. 여기의 ‘저주’(qelala)는 강한 저주 공식인 ‘저주받다’(‘arur’)보다 훨씬 약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창세기의